

재즈를 듣다 21

아프로비트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가끔 나 자신을 역사의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 기아, 질병에 시달려본 적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대한민국은 엄혹한 군부 독재 치하였지만, 철없던 어린애라 그저 세상이 평화로운 줄로만 알았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비드-19 팬데믹이 사실상 처음 겪어보는 국제적 시련이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20세기에 들어 독립하긴 했지만, 유럽 제국주의가 싸질러 놓은 각종 골칫거리로 인해 내전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나치가 벌인 유대인 학살과 달리 아프리카에서 행해진 끔찍한 인종 청소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독재자를 죽인 자리에 또 다른 독재자가 득세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민중이 받는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대 아프리카에 등장한 20세기 음악 중엔 정치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많다. 음악 양식 또한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끌려온 흑인 대중에 의해 꽃피운 음악이 다시 백여 년 만에 아프리카로 역수입돼 뒤섞이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카리브해(Caribbean Sea)는 대서양에 속한 바다다. 주변에 쿠바,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같은 섬나라가 늘어서 있다. 맘보, 룸바, 바차타, 메렝게, 칼립소, 레게 등등... 온갖 음악 장르의 보고이기도 하다. 과거 대서양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무역선이 출발해 최소 두 달에서 몇 개월을 항해해야 아메리카 대륙에 닿을 정도로 컸지만, 현재는 비행기로 하루가 채 안 걸린다. 카리브해 음악이 바다 건너 서아프리카에 영향을 끼쳤으리란 건 매우 자연스럽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에 하이라이프(Highlife)란 장르가 등장했다. 기존 캐리비언 음악에 서아프리카 요소가 섞였다. 원산지는 가나이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잊게 만드는 게 카리브해 음악의 특징이듯, 하이라이프도 비슷하다. 이런 음악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잘 차린 옷을 입고 비싼 클럽을 드나드는 계층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에서도 인기를 끌었지만 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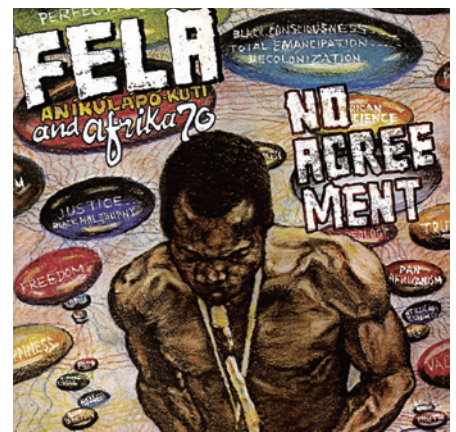
후반 내전이 발발하며 사그라든다. 또 하나의 원인은 주주(Juju)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나이지리아에서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메리카 노예 역사에 종종 등장하는 요루바족의 요소가 가미된 음악이다. 콩고의 수쿠(Soukous) 역시 하이라이프만큼 인기가 있던 장르다. 아프로-라틴(Afro-Latin)은 간단히 말해 아프리카 출신 음악가가 연주하는 쿠반 살사 음악이다. 살사뿐만 아니라 땅고도 아프리카에 전해졌다. 키좁바(Kizomba)는 1980년대 앙골라에서 전통 음악인 셈바(Semba)와 땅고가 교류하며 나온 춤이다.

펠라 쿠티(Fela Kuti)는 나이지리아 음악가다. 아버지는 성공회 목사이고, 어머니는 교사이자 반식민 페미니스트였다. 그는 음악가이기에 앞서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성을 띤 인물이다. 우선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은 범아프리카주의자였고, 일부다처주의자이기도 했다. (생전에 27명의 여성과 합동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동한 흑인무장단체 흑표당(= 블랙 팬서)의 영향을 받은 급진파였다. 그는 하이라이프, 재즈, 펑크, 요루바족 타악기 전통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든 뒤 자칭 ‘아프로비트(Afro-beat)’라고 명명했다. 즉 아프로비트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본래는 일개인의 창작물로 시작했다. 하지만 펠라 쿠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정말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장르로 성장해갔다. 또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는 스튜디오 공간 주변을 칼라쿠타(Kalakuta) 공화국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밴드명을 ‘아프리카 70’이라고 했다. ‘공화국’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

로 나이지리아 정부에 독립을 요구했던 거로 봐서 자신을 소국의 왕이라고 여기는 과대망상증이 있었던 것 같다.

재즈에 아프리카 요소를 뒤섞은 아프로비트는 내용에서도 상당히 과격한 정치성을 띄었다. 1976년 발표한 ‘좀비(Zombie)’는 독재자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나이지리아 군인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당연히게도 군사 정권이 이를 묵과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듬해 천여 명의 군인이 그의 거처를 습격해 방화 및 폭력을 저질렀고 자칭 ‘칼라쿠다 공화국’은 파괴됐다. 이후에도 펠라 쿠티는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다 1997년 에이즈로 사망한다. 많은 여성과 결혼한 만큼 자식도 많다. 상당수가 음악가나 댄서로 활동 중이다. 페미 쿠티(Femi Kuti)는 부친의 아프로비트를 계승한 대표 음악가다. 막내아들로 알려진 세운 쿠티(Seun Kuti)는 부친 사후 이집트 80(Egypt 80)을 이어받아 활동 중이다.

펠라 쿠티의 첫 음반은 1965년 발표한 ‘펠라 랜섬 쿠티와 쿨라 로비토스(= Fela Ransome Kuti and His Koola Lobitos)’다. 수록곡 중 ‘하이라이프 시간이다(= It's Highlife Time)’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음악적 출발점이 어디 인지를 알려주는 음반이라 하겠다. ‘69년 LA 세션(The '69 LA Sessions)’은 1969년 미국 방문 당시에 만나 겹뎀던 흑민 민권 운동가이자 그의 멘토 역할을 겹뎀던 산드라 스미스(Sandra Smith)에 관한 음반으로 ‘숙녀의 좌절(= My Lady Frustration)’이 대표곡이다. 1977년 발표한 ‘합의 거부(= No Agreement)’는 굉장히 펑키한 댄스 음악이다.



펠라 쿠티의 앨범들

카메룬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마누 디방고(Manu Dibango)는 카메룬 재즈 색소폰 및 비브라폰 연주자다. 미국 재즈 연주자들이 어린 시절 흑인 교회 음악을 접하며 성장한 경우가 많듯, 마누 디방고 역시 아프리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성장했다. 1972년 발표한 ‘쏘울 마코사(Soul Makossa)’가 그의 이름을 알린 히트곡이다. 마이클 잭슨 최대 히트 음반인 ‘스릴러(Thriller)’에 수록된 첫 곡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Wanna Be Startin’ Somethin’)'이 이를 베껴서 더 유명해졌다. 후렴구에서 주문처럼 “마마스 마마스 마마 마코사”가 반복하는데 당시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가, ‘쏘울 마코사’를 들은 후 비로소 납득했다. ‘마코사’는 카메룬에서 유행한 음악 장르 중 하나다. 과거엔 아프리카 재즈 음반은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마누 디방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튜브 덕분에 이런 갈증이 상당히 해소됐다. 1968년 발표한 ‘아빠 엄마께 인사(= Ode To Papa And Mama)’에 수록한 ‘쏘울 머신(Soul Machine)’, 1971년 발표한 ‘수쿠(= The Soukouss)’ 등을 들어보면 평키한 라틴 재즈를 연상케 한다. 2011년 발표한 ‘아프로-쏘울 머신(Afro-Soul Machine)’ 역시 오랜 내공이 느껴진다. 안타깝게도 2020년 3월 24일에 파리에서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셨다.

카메룬에서 남동쪽엔 ‘콩고공화국’이 있고, 다시 오른쪽엔 ‘콩고민주공화국’이 있다. 보통 ‘콩고’라고 하면 ‘콩고민주



레이 레마의 앨범

공화국’을 가리킨다. 콩고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끝없는 수난의 역사로 점철된 대다수 나라와 마찬가지로, 레오폴 2세라는 벨기에 왕이 저지른 끔찍한 폭정으로 수백만이 사망한 곳이다. 문화적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와 비슷하게) 동서의 동서 음악이 오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장르는 수쿠(Soukous)다. 레이 레마(Ray Lema)는 콩고 재즈 피아니스트 겸 기타리스트이다. 아프로비트가 음악적으로 혁신을 담고 있다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기도 해, 순수한 감상용에 가까운 아프리카 재즈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그 답을 레이 레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초기에 유럽 음악 전통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



마누 디방고의 앨범들

라 70년대 초 음악 인류학자로서 전국을 돌며 음악을 수집한 경력이 있다. 마누 디방고와 마찬가지로 1982년 파리에 정착해 활동했다. 활동 초기엔 대체로 아프리카 뮤지션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면 1996년 발매한 ‘녹색 불 (= Green Light)’부터 스타일이 바뀌었다. 피아노 연주가 매우 서정적이고, 그래서 듣기 좋다. 2012년 발매한 ‘5중 주단 (= Ray Lema Quintet - VSNP)’은 이정표가 될 만한 놀라운 음반이다.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와 이에 저항한 넬슨 만델라의 역사가 우선 떠오른다. ‘타운십’은 인종 분리 정책을 상징하는 지역이고, 그 중 ‘소웨토(Soweto)’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진 곳이다. 때때로 아프리카 음악을 찾아 헤매다 신기함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대비되는 참혹한 분쟁과 모순이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 민중의 삶은 아주아주 녹록치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음악이 있고,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 소웨토 같은 살벌한 동네에서조차 ‘음바왕가 (Mbaquanga)’라는 거리의 음악이 있었다고 한다. 유럽식 현악사중주 단체인 ‘소웨토 스트링 콰르텟(Soweto String Quartet)’은 1994년 발표한 ‘얼룩말 교차로 (= Zebra Crossing)’에서 데이브 그루신의 히트곡인 ‘보사 바로크 (Bossa Baroque)’를 연주했다.



소웨토 현악사중주단의 ‘얼룩말 교차로’

휴 마세켈라(Hugh Masekela)는 남아공 출신의 재즈 트럼펫 연주자다. 부친이 재즈광이라 어린 시절부터 미국 재즈를 들으며 자랐다. 아트 블레이크의 ‘재즈 메신저스’에게서 자극받아 1959년 결성한 ‘재즈 에피슬즈(The Jazz Epistles)’가 남아공 최초의 재즈 밴드이다. 하지만 엄혹한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곳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오랜 세월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넬슨 만델라의 석방과 인종차별법이 폐지되자 3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많은 명반을 남겼지만 그중 1994년 발표한 ‘희망 (= Hope)’, 1996년 ‘삶의 기록 (= Notes of Life)’, 2001년에 컴필레이션 음반으로 발표한 ‘풀밭에서 놀다 (= Grazing in the Grass)’를 추천한다. 🎺



휴 마세켈라의 앨범들